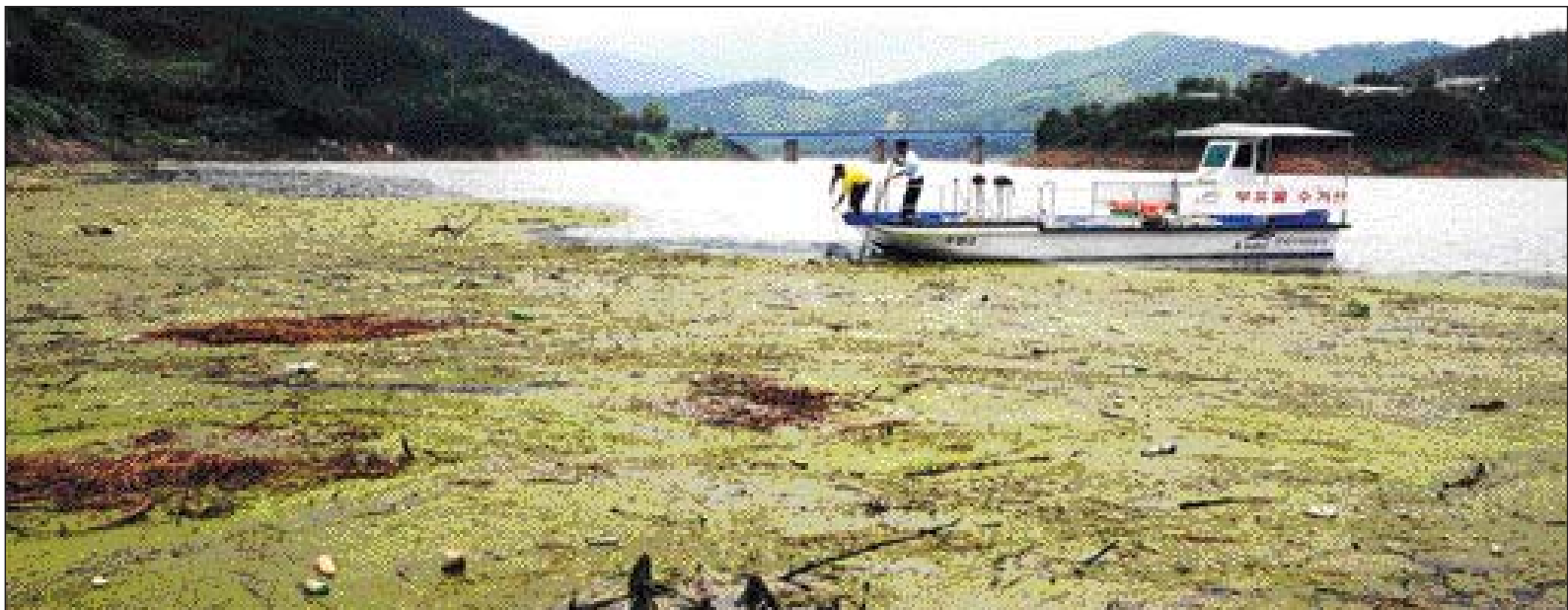




물 반 쓰레기 반

19일 순천시 송광면 신곡천교 아래 주암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부유물 쓰레기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폭우로 주암댐에는 600㎡ 이상의 쓰레기가 휩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순천=위직량기자 jrwi@

LG이노텍, 광주에 2천억 투자

내년까지...광주 LED·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첨단 전자 부품 전문기업인 LG이노텍이 광주시에 2천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해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LED와 광산업, 전자부품의 기술·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LG이노텍과 LED분야, 디스플레이 부품, 모바일 부품 등 개발생산을 위한 2천억원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LG이노텍은 올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LED분야 1천513억원과 디스플레이

분야 269억원, 모바일 부품 218억원 등 총 2천억원의 광주 공장에 투자한다.

시는 이번 LG이노텍의 투자결정에 따라 최대 7천억원의 매출 증대와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는 물론 구미와 평택 등에 생산시설을 갖춘 LG이노텍은 광주공장에서도 모바일 모듈, 디스플레이, 네트워킹, LED 등 4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LED 생산력은 연간 약 9억 개에 달해 국내 최

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면 생산량은 10배 이상, 매출도 지난해 7천억원에서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이노텍은 지난 1970년 8월 금성알프스전자로 창립, 국내 최초 TV튜너 생산을 시작으로 디지털 및 아날로그 튜너, 광 디스크 드라이브용 모터, 모듈레이터, 세도우 마스크 사업을 세계 1등 사업으로 육성한 첨단 전자부품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조 9천216억원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100년만의 폭우’ 요센 예상일 기후변화 못따르는 수리시설

설계기준 강화 필요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우가 쏟아져 피해가 크게 급증하면서 하천과 배수관 등 수리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폭탄’이 반복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들은 시간당 강우량(이하 시우량)을 과거 기준으로 설정, 최근의 이상 기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수·하수시설 등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피해가 증폭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신안 자은도의 시우량이 108mm를 기록한 것을 비롯 나주는 103mm, 광주는 70mm의 비가 내려 영산강과 광주천이 범람 직전까지 차오르기도 했다. 나주에는 지난 11일에는 시간당 75mm, 16일에는 64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신안과 나주에 쏟아진 100mm 이상의 시우량은 강우빈도상 200년을 넘어서는 것이며, 하루 300mm안팎의 강우량도 빈도상 30~50년으로 나타났다. 200년 빈도는 200년에 한번 내릴까 말까하는 양이라는 의미다. 광주시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는 하

천과 하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시우량과 강우빈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일부시설을 제외하면 예산이나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그 빈도를 10년~10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하수시설은 10년 빈도 시우량 61.9mm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광주천의 경우 상류부터 동구 원지교 구간은 100년 빈도, 원지교에서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는 200년 빈도로 해 시우량을 각각 40mm, 90mm에 맞춰 폭과 깊이 등을 설계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시우량을 넘어서는

비가 내리면 하천은 범람하고, 배수시설은 역류하게 돼 검잠을 수 없는 수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용성 광주시 동구청 건설과장은 “지난 7일 광주에 시간당 최고 70mm의 비가 내리면서 다수의 주택이 침수됐다”며 “기존 수리시설은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큰 만큼 학계와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순홍 나주시 경제건설국장 또한 “최근 나주에 내린 시우량 103mm의 비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하천·하수관로 용량으로는 기

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수리시설의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김운중 교수(수리공학)는 “시우량이 커지면 하수·배수관의 단면과 하천의 폭도 따라서 조정돼야 하는데 이는 곧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특정지역에만 온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에 맞게 수리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예측불허 ‘미디어법’

정세균 단식...영수회담 제의
박근혜 “직권상정 땀 반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단식 돌입과 함께 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의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여야의 대치정국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

련,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지난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 열흘간 단식을 감행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디어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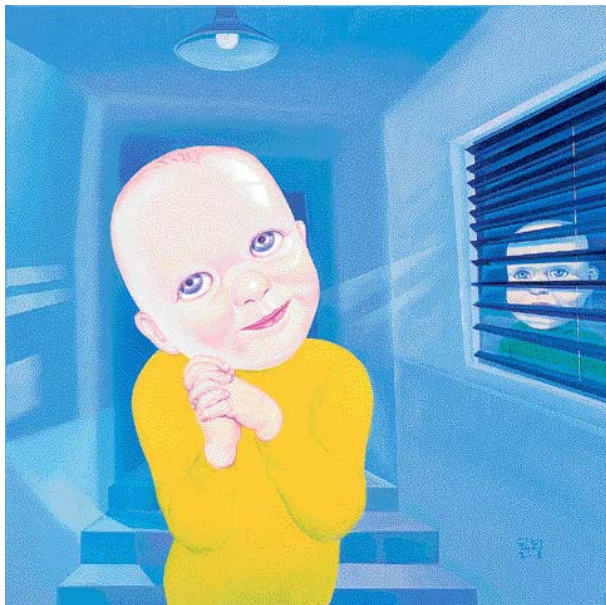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조기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함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급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정국은 예측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호전

인공호흡기 제거



<100×100cm·캔버스에 유화>

최재영 작 ‘인형 시리즈-모놀로그’

어른이 되기 위해 순수함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들의 눈은 슬프다. 그래서인지 무표정한 인형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

서양화가 최재영의 인형 시리즈는 인형의 눈을 통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밝은 색채와 아이의 순수함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원색의 색채는 화사한 느낌을 주며, 돌이킬 수 없는 유년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되살려 준다.

최재영은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슬레이드 예술대학과 웨스턴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광주, 서울, 런던 등지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어 화사한 색과 잔잔한 울림이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www.kwangju.co.kr/)를 통해 작가의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